

일제강점기 함경도의 행정구역 변화와 인구 변동*

정병욱**

Changes in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Population in Hamgyeong-d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ungwook Jung**

요약 : 일제시기 함경도는 ‘군(郡)’의 숫자가 늘어난 유일한 지역이다. 증설된 네 개의 군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2개는 1914년 부제(府制)의 실시에 따라 부가 분리되면서 나머지 지역이 군이 된 경우이고, 나머지 2개는 도의 군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아 증설된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도 내 군들 사이의 균형과 ‘부원(富源)’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했던 것 같다. 또 함경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부와 지정면·읍의 증가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는 도시화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배경은 일본의 군사적 점령, 1930년대 이후 ‘북선(北鮮) 개발’이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화와 서로 호응하면서 함경도의 인구 구성도 변화하였다. 함경도의 산업별 인구 비중을 보면 1920년은 전국과 유사하게 농업이 85% 전후를 차지하는 1차 산업 위주의 지역이었으나, 1940년 농업인구의 비중은 50%를 넘지 못했다. 대신 광공업과 어업 인구의 성장, 그에 따른 상업과 교통업 인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함경도의 인구 증가는 사회적 요인이 컸는데, 인구 흡수 요인으로 ‘북선 개발’에 수반한 여러 사업의 진전을 꼽을 수 있다. 이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도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었다.

주요어 : 함경도, 행정구역, 인구, 도시화, 북선 개발

Abstract :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mgyeong-do (province) was the only place where the number of “Gun (郡)” (districts) increased. These four newly established district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wo of them were divided under the prefecture system of 1914 which divided each “Bu (府)” (city) and made the remaining areas “Gun.” The other two were divided due to the large size and popul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Hamgyeong-do. The latter seemed to consider the balance of the “Gun” within “Do” and the possibility of resource development. In addition, Hamgyeong-do experienced more active increase in “Bu” and “Eup(邑)” (town) than in other places. This means that urbanization took place at a rapid pace as a result of Japan’s military occupation and the “Development Plan of North Korea” after the 1930s. Changes in the demographics of Hamgyeong-do appeared alongside the changes in its administrative districts. Hamgyeong-do’s industrial population shows that the province’s economy was predominated by the primary industry with 85% of its people in agriculture, which was similar to the national average in 1920. But by 1940,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n agriculture decreased and did not even reach 50%. It is worth noting that instead, the number of people in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fishery increased, followed by that in the commerce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The increased population in Hamgyeong-do was greatly affected by social factors. Improvements in many business projec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Plan of North Korea” could be attributed for the increase in immigrants. Thus, not only Koreans but also Chinese and Japanese came looking for jobs. Key Words : Hamgyeong-do(咸鏡道), Administrative district, Population, Urbanization, Development Plan of North Korea(北鮮)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인문한국(HK) 교수(Associate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jungbw@korea.ac.kr)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함경도 지역의 행정구역과 인구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종래 이 시기 지방행정 제도에 관해서는 孫禎睦(1992), 이정은(1992)의 연구가 있으며, 몇몇 지역 사례를 연구한 글들이 있다(朴道植, 2004; 서현주, 2004; 김연지, 2007; 이병운, 2007; 김병문, 2010; 양승필·이강업, 2011; 우승완 등, 2011). 특히 손정목의 연구에 의해 그 제도사적 변천은 대략 정리되었으며, 후속작업을 통해 한반도 전역의 변화상과 사회상에 관한 대략적인 소묘도 이뤄졌다(孫禎睦, 1996a; 1996b). 다만 식민지 조선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또 일제의 침략성을 부각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더러 과도한 일반화나 단순화가 보인다. 이 글에서 다루는 함경도는 손정목을 비롯해 종래 연구에서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변화의 상징처럼 지적하는 ‘군·면 통폐합’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지역이다. 함경남·북도에서 면은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통폐합이 이뤄졌으나 군은 오히려 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인구에 관한 연구도 몇몇 사례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정된 이미지가 구축되었다(金哲, 1965; 申容澈, 1988; 이홍락, 1994; 孫禎睦, 1996a; 1996b; 길인성, 2001; 김홍순, 2011). 예를 들자면 일제시기 인구에 관한 선구적 연구자인 김철은 일제의 강점 기간 동안 농림업 인구가 점점 줄었지만 1940년 여전히 73%를 차지했다며 아시아의 여러 후진지역 중 최고 수치라 했다(金哲, 1965:167). 그런데 같은 해 함경남도의 농업인구 비중은 57%, 함경북도는 36%에 불과했다. 전체적인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변화가 함경도에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함경도의 인구의 변동은 행정구역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필자가 함경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위와 같은 함경도의 특수성을 규명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실상과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 사례 연구를 축적함으로써 새로운 종합화, 역사상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이다. 둘째, 함경도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 정보의 축적이다.¹⁾ 조선후기 이 지역에 관한 연구는 고승희(1987), 강석화(2000)의 책이 있지만 일제강점기 이후에 대해서는 연구가 드문 편이다.²⁾ 필자는 북한 대기근의 역사적 기원을 고찰하는 차원에서 기근이 가장 심했던 함경도 지역의 역사를 분석한 적이 있다(정병욱, 2014). 주로 식량 수급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이 걸어온 궤적을 파악하는 것이 현재를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유효함을 절감했다. 지난 논문이 함경도의 ‘식량’ 편이라면 이 글은 ‘행정구역과 인구’ 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 식량 문제는 행정구역과 인구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시론 단계를 넘어 식량, 행정구역, 인구 각각이 별도의 독립된 주제로 심화 연구돼야 할 것이다.

II. 행정구역의 변화

1. 일제강점 이전의 추이³⁾

우리가 알고 있는 함경도 지역(1945년 기준 함경남·북도, 현 북한의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남·북도, 양강도, 자강도 일부와 강원도 일부)은 고려 시대에 별방도(別方道) 또는 동북면(東北面)이라 하다가 윤관이 6진을 개척한 뒤 연해명주(沿海溟州)라 했다. 조선 시대는 영길도(永吉道), 함길도(咸吉道), 영안도(永安道)라 바뀐 뒤 부르다가 중종 때 함경도라 개칭했다.⁴⁾ 조선 초기 행정구역은 이후 각 지역별로 여러 차례 승격과 강등, 신설과 폐지가 있었는데, 근대 13도제 성립 이전 8도제의 모습은 1865년 간행된 「대전회통(大典會通)」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 8도 중 함경도의 이조(吏曹) 소속 외관직은 관찰사(종2품) 및 도사(종5품) 각 1인,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 1인, 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 18인, 목사(牧使, 정3품) 1인, 군수(郡守, 종4품) 2인, 현감(縣監, 종6품) 2인, 판관(判官, 종5품) 2인이 있었다(표 1, 그림 1).⁵⁾ 도호부는 18곳으로 전국 75 곳 중 무려 24%가 이곳에 설치되었다.⁶⁾ 설치 지역은 온성, 경원, 경흥, 종성, 회령, 부령, 무산, 명천, 갑산, 삼수, 단천, 북청, 장진, 정평, 덕원, 안변, 후주(후창)⁷⁾이다. 8도 체제하에서 함경도의 행정중심지는 함흥이다. 함흥에는 관찰사가 상주하고 부윤(관찰사 겸임)과 판관이 함께 상주했다. 이와 함께 중요 행정중심지가 길주(吉州)로서 목사가 부임했다. 또한 경성(鏡城)에는 판관이 부임하여 함경도 북부지역의 각종 송사(訟事)와 행정업무를 맡았다. 도호부를 총괄하는 대도호부는 영흥(永興)으로 군사 중심지였다. 도호부가 18곳임에 비해 행정관서인 군현은 2군(고원과 문천), 2현(홍원과 이원)으로 함경도 지역의 특성을 보여준다. 즉 도호부가 원래 변경에 설치된 군사적 성격의 행정기구에서 기원한다는 점

을 감안하면, 이는 조선시대 함경도가 변경의 군사 지역이었음을 말해준다.

1895년 5월 1일 조선의 행정구역은 8도제에서 23부제로 바뀌었다.⁸⁾ 이 때 함경도 지역은 함흥부(咸興府), 갑산부(甲山府), 경성부(鏡城府) 3부로 나뉘고 그 밑에 22군을 두었

었다. 먼저 함흥부에 속한 군은 함흥군, 단천군, 이원군, 북청군, 홍원군, 정평군, 영흥군, 고원군, 문천군, 덕원군, 안변군으로 총 12군이다. 경성부에는 경성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종성군, 회령군, 부령군, 무산군, 명천군, 길주군의 총 10군, 갑산부에는 갑산군과 삼수군의 2군을 두었

표 1. 함경도의 행정구역 변천

조선 8도			23부			13도						
대전회통			1895.5.26			1896.8.4			1912.1.1		1914.4.1	
도명	도호부/군 등	직급	부명	군명	도명	부군명	등수	도명	부군명	도명	부군명	
함경도	갑산	도호부사	갑산부	갑산	함경남도	갑산군	4등	함경남도	갑산군	함경남도	갑산군	
함경도	고원	군수	함흥부	고원	함경남도	고원군	4등	함경남도	고원군	함경남도	고원군	
함경도	단천	도호부사	함흥부	단천	함경남도	단천군	2등	함경남도	단천군	함경남도	단천군	
								함경남도	원산부	함경남도	원산부	
함경도	덕원	도호부사	함흥부	덕원	함경남도	덕원부	1등			함경남도	덕원군	
함경도	문천	군수	함흥부	문천	함경남도	문천군	4등	함경남도	문천군	함경남도	문천군	
함경도	북청	도호부사	함흥부	북청	함경남도	북청군	3등	함경남도	북청군	함경남도	북청군	
함경도	삼수	도호부사	갑산부	삼수	함경남도	삼수군	4등	함경남도	삼수군	함경남도	삼수군	
										함경남도	풍산군	
										함경남도	신흥군	
함경도	안변	도호부사	함흥부	안변	함경남도	안변군	3등	함경남도	안변군	함경남도	안변군	
함경도	영흥	대도호부사	함흥부	영흥	함경남도	영흥군	2등	함경남도	영흥군	함경남도	영흥군	
함경도	이원	현감	함흥부	이원	함경남도	이원군	4등	함경남도	이원군	함경남도	이원군	
함경도	장진	도호부사	강계부	장진	함경남도	장진군	4등	함경남도	장진군	함경남도	장진군	
함경도	정평	도호부사	함흥부	정평	함경남도	정평군	3등	함경남도	정평군	함경남도	정평군	
함경도	함흥	부윤	함흥부	함흥	함경남도	함흥군	2등	함경남도	함흥군	함경남도	함흥군	
함경도	홍원	현감	함흥부	홍원	함경남도	홍원군	4등	함경남도	홍원군	함경남도	홍원군	
14			13군(+1군)			1부 13군			1부 13군		1부 16군	
함경도	경성	판관	경성부	경성	함경북도	경성군	4등	함경북도	경성군	함경북도	경성군	
함경도	경원	도호부사	경성부	경원	함경북도	경원군	4등	함경북도	경원군	함경북도	경원군	
함경도	경흥	도호부사	경성부	경흥	함경북도	경흥부	1등	함경북도	경흥군	함경북도	경흥군	
함경도	길주	목사	경성부	길주	함경북도	길주군	2등	함경북도	길주군	함경북도	길주군	
								함경북도	성진군	함경북도	성진군	
함경도	명천	도호부사	경성부	명천	함경북도	명천군	4등	함경북도	명천군	함경북도	명천군	
함경도	무산	도호부사	경성부	무산	함경북도	무산군	4등	함경북도	무산군	함경북도	무산군	
								함경북도	청진부	함경북도	청진부	
함경도	부령	도호부사	경성부	부령	함경북도	부령군	4등			함경북도	부령군	
함경도	온성	도호부사	경성부	온성	함경북도	온성군	4등	함경북도	온성군	함경북도	온성군	
함경도	종성	도호부사	경성부	종성	함경북도	종성군	3등	함경북도	종성군	함경북도	종성군	
함경도	회령	도호부사	경성부	회령	함경북도	회령군	3등	함경북도	회령군	함경북도	회령군	
10			10군			1부 9군			1부 10군		1부 11군	

자료: 조두순 저(한국법제연구원 역주), 2000, 「大典會通」,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官報」, 1895.5.26, 칙령제98호 “地方制度에 관한 件”; 「官報」, 1896.8.4., 칙령제36호 “地方制度和 官制 및 俸給과 經費의 改正에 관한 件”; 朝鮮總督府, 1912,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臨時土地調査局, 1914, 「面ノ名稱及區域」.



그림 3. 1896년 13도제 실시와 함경도의 군별 등급(1~4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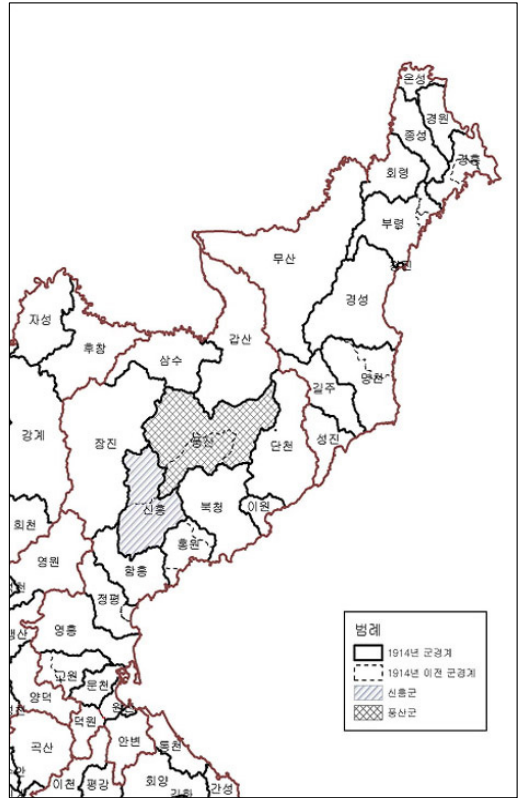


그림 4.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한 함경남북도 군(郡) 경계

함경남도는 함경북도에 비해 장진군, 삼수군, 갑산군의 험한 산세와 고원지대를 제외하면 2등군과 3등군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2등군은 함경도의 명실상부한 중심지였던 함흥군과 대도호부가 있던 영흥군, 단천군이었고, 3등군은 북청군, 정평군, 안변군이며, 원산항을 끼고 있던 덕원부는 1등군이었다. 흥원군, 이원군, 고원군, 문천군은 자연적 입지는 주변지역과 다르지 않았으나 군의 규모가 작은 군으로 4등군이었다.

2. 1914년 군의 증설

1910년 강점 이후 일제는 13도제를 유지하면서 1906년부터 1913년 사이에 소폭 변경을 거쳐 1914년 4월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1910년 말 12부 317군 4,351면이었던 것이 12부 220군 2,522면으로 변경되었다. 부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군과 면은 각각 97개, 1,829개가 줄었다. 함경남도는 1910년 말 1부 13군 189면에서 1914년 4월 1부 16군 142면, 함경북도는 1부 10군 122면에서 1부 11군

79면으로 바뀌었다.¹³⁾ 군의 수가 각각 3개, 1개 증가하였다(그림 4). 면은 각각 47개, 43개 줄었다. 면도 전국 평균보다는 적게 줄었지만 무엇보다 군이 증가한 것은 13도 중 함경남·북도가 유일하다. 1896년 13도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총 332군이 220군으로 줄었으며, 충청남북도 경기도 전라북도와 같은 곳은 절반가량이 줄었다. 반면에 함경남도는 3개, 함경북도는 1개가 늘었다.

함경남·북도에서 군이 증가한 경우는 두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종전의 부였던 곳 중 새로운 부제에 의해 부가 될 지역, 즉 시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새로 군이 된 경우다. 원산부의 경우 구 일본인거류지역, 중국 전관거류지와 주변일대로 축소하고 나머지 지역은 덕원군(德源郡)으로 설정하는 식이다(咸鏡南道廳 編, 1930: 698-699). 함경북도의 청진부도 이런 식으로 청진부와 부령군(富寧郡)으로 나뉘었다. 전국적으로 기존의 부가 축소된 부와 나머지 지역은 군이 되는 식으로 11개 군이 신설되었다.¹⁴⁾ 경성부와 고양군, 인천부와 부천군도 이와 같은 식의 분리 신설이었다. 표 2의 면적 변동을 보면 덕원군

은 원산부가 된 나머지 지역 외에 인근 안변군의 일부 지역을 합하여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4년 3월 제정된 부제(府制)는 도시 농촌을 함께 포함했던 종전의 부와는 달리 농촌지역을 분리하여 '군'으로 하고 시가지 지역만을 '부'로 한, 최초의 도시 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손정목은 첫째, 당시의 사실상의 도시지역을 무시한 도시제도, 둘째, '동치동화(同治同和) 일선융합(日鮮融合)'을 표방한 하울만의 자치적 공법인(公法人)으로서 총독부의 식민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점, 셋째, '일선(日鮮)공통세제'라는 미명 아래 일본인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거류민단이 안고 있던 부채를 합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한국인의 부

담을 신설하거나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침략성을 지적한다. 부는 독자적인 재원 조달(起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적 시설의 신설 확장에 편리한데, 조선총독부는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를 설정했다. 12부의 평균 일본인 비율은 25.4%이다. 원산부의 일본인 비율은 30.3%, 청진부는 49.0%나 되었다. 반면에 일본인 비율은 낮지만 원산보다 인구가 많았던 개성과 함흥, 청진보다 인구가 많았던 전주, 해주, 진주 등과 같은 도청소재지도 부가 되지 못했다(孫禎睦, 1992:129-154).

함경도에서 군이 증가한 또 다른 경우는 신홍군과 풍산군이다. 함흥군, 홍원군, 장진군의 접속지역을 합하여 신홍군을, 북청군의 북부 및 갑산군의 남부를 합하여 풍산군

표 2.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후 함경남도 소속 군의 상황

(단위 : 方里, 町步, 戶, 人, 円)

	1912년							1915년도							면적 변동 (方里)
	면적 (方里)	면 수	有稅地 (町步)	전체 호수	전체 인구	일본인 호수	일본인 인구	면적 (方里)	면 수	有稅地 (円, 세액)	전체 호수	전체 인구	일본인 호수	일본인 인구	
원산부	17	6	8,386	9,871	47,406	1,542	6,257	0.38		시가지세	5,953	22,413	1,959	7,082	-16
덕원군								61	6	14,957	7,904	43,916	109	318	61
함흥부	112	30	38,563	28,408	162,829	654	2,186	70	20	47,925	23,321	144,437	751	2,404	-42
정평군	65	19	20,583	11,806	66,078	32	92	65	9	27,455	12,182	72,919	67	176	0
영흥군	112	14	37,277	19,246	106,547	157	465	106	13	45,129	20,695	116,039	209	558	-5
고원군	42	6	12,195	4,766	25,836	30	64	47	6	17,869	6,078	33,953	132	378	5
문천군	44	6	8,631	4,783	24,564	47	115	44	5	11,303	5,334	28,740	118	330	0
안변군	107	12	25,843	13,198	68,460	342	1,215	62	7	26,395	10,892	58,827	99	329	-45
홍원군	92	23	16,086	15,813	92,278	56	156	70	12	21,246	14,051	84,553	58	150	-21
북청군	158	23	34,393	27,711	159,696	172	479	114	17	38,756	24,407	145,142	278	897	-44
이원군	35	3	7,807	5,653	29,898	16	38	35	3	12,357	6,108	34,026	63	155	0
단천군	191	9	22,526	17,986	107,698	43	103	191	9	31,397	18,573	119,190	74	317	0
신홍군								116	8	10,196	8,802	52,797	78	161	116
장진군	346	11	4,005	5,476	33,077	16	31	304	7	3,862	6,159	36,274	61	128	-42
풍산군								209	5	6,208	9,990	64,881	37	95	209
삼수군	135	18	8,012	6,485	37,338	68	207	135	8	8,132	6,922	41,083	100	308	0
갑산군	503	10	17,732	14,006	84,296	117	300	327	7	10,493	9,797	60,600	156	499	-176
전체 합계	1,959	190	262,040	185,208	1,046,001	3,292	11,708	1,959	142	333,680	197,168	1,159,790	4,349	14,285	0
군합계	1,942	184	253,653	175,337	998,595	1,750	5,451	1,958	142	333,680	191,215	1,137,377	2,390	7,203	
군평균	149	14	19,512	13,487	76,815	135	419	122	9	20,855	1,1951	71,086	149	450	
군 표준 편차	134	8	11,715	8,233	47,947	181	620	91	5	13,955	6,410	39,508	172	559	

자료: 咸鏡南道, 1914, 「咸鏡南道統計年報(1912年)」, 京城 咸鏡南道, 1-2; 咸鏡南道, 1917, 「(朝鮮總督府)咸鏡南道統計年報(1915年)」, 京城 咸鏡南道, 1-2.

을 만들었다(藤本梅良, 1929:附錄 24). 전국적으로 군이 축소되는 가운데 위의 부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군을 제외하면 유일한 경우이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군·면 통폐합의 이유를 “종래의 행정구역은 그 지역 호구 자력에 심히 부동(不同)”하여 “시정상의 편의와 경비의 절약을 도모”함으로써 “인민의 부담을 균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朝鮮總督府編, 1935:164). 군면 통합의 결과 국비 17만여 원, 경비 40만여 원을 절감했다고 한다(孫禎睦, 1992: 156)

왜 전국적으로 군을 통폐합하는 가운데 함경남도만 증설되었는가? 아직 당시 査定 자료를 보지 못하여 확정할 수 없지만 다음 같이 추정해볼 수 있다. 우선 1913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도 면적을 소속 군수로 나누어보면 평균 57.8방리(方里)인데, 군당 평균이 100방리를 넘는 곳은 함북 176.0 방리, 함남 128.5 방리 두 곳 뿐이다. 두 도에는 상대적으로 광활한 군이 많아 분할 증가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면 함북이 아니라 함남의 군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도별 군당 인구를 보면 평균 49,162명인데, 함남이 80,462명으로 최고였고 2위는 전남 60,014명이었다. 반면 함북은 평균에 못 미치는 47,099명이었다.¹⁵⁾ 따라서 군당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 함남에 군이 증설될 가능성이 높았다.

함경남도에도 군 증설 방향은 두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하나는 가급적 도 내 군 간의 균형을 도모했던 것 같다. 표 2를 보면 1912년 면수, 유세지(有稅地), 호수, 인구에서 1위는 함흥군, 2위는 북청군이였다. 이렇게 군세(郡勢)가 강한 곳을 일부 나누어 새로운 군을 만들었다. 즉 함흥군 일부와 주변 흥원군, 장진군 일부를 합하여 신흥군이 만들어졌고, 북청군 일부와 주변 갑산군 일부를 합하여 풍산군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1915년 상황을 보면 괄목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표준편차가 줄어 이전에 비해 좀 더 평균에 수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유세지의 경우 표준편차가 늘었는데 이는 1912년과 1915년의 단위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전자의 단위는 단순 면적(정보)이고 후자의 그것은 면적을 등급별로 환산한 세액(稅)이다. 또한 府의 경우 일본인 호수나 인구가 중요한 변수였으나 군의 경우는 중요한 고려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새로 신설된 군은 일본인이 많았던 지역이 아니었다.

다른 하나는 ‘부원(富源)’의 창출 가능성이다. 신흥군은 성천강 신흥평야 지대로 농업에도 적합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광무소 출장소, 제국(帝國)탄업주식회사의 탄광이 있었고 광맥이 “무진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畑本昇, 1924:177). 또한 부전강 발전소가 있고, 장진강 발전소의 수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192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됐다. 풍산군도 1920년대 일시 “광업이 극성”했으며(畑本昇, 1924:175-177), 1930년대 허천강 발전소 개발이 이뤄진다.

3. 부와 지정면·읍의 증가

1914년 이후 일제 강점기 내내 함경도의 군 체제, 즉 함남 16군과 함북 11군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반면 부와 지정면(指定面)/읍, 특히 부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표 3을 보면 1914년 부제가 시행될 당시 원산과 청진 2개 부에서 시작하여 1930년대 함흥과 나진, 1940년대 성진과 흥남이 부로 승격되어 이후 1944년 총 6개부가 되었다. 이는 1944년 당시 전국 22개부 중 27%에 해당한다. 1914년 17%에 비하면 눈부신 성장이었다.

원산은 1880년 개항된 이래로 조선 북부와 일본 및 조선 남부를 잇는 항구로서 발전한 곳이며, 청진은 러일전쟁의 수행을 위한 군수품 수송을 위해 개발되기 시작하여, 함경도의 대항구로 거듭나기 시작하자 일본과 만주, 러시아를 잇는 육·해교통로의 중심지가 되었다.¹⁶⁾ 함흥은 도청소재지로 진작 부가 되었어야 하나 일본의 거주지 우선으로 부가 설정됨에 따라 면에서 지정면(1917년)을 거쳐 1930년에서야 개성과 함께 부가 되었다. 나진은 일본의 만주 침략 이후 북만주와 일본의 동해 지역(裏日本)을 잇는 항구로서 각광을 받았다. 용기-나진 간 용라철도가 1935년 10월 개통되었고, 1936년 말 나진항의 제1기 300만 톤 축항공사가 완료되었다. 이로써 북만주에서 일본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통로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일본의 원료·식량 수집과 상품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동해경제권’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¹⁷⁾ 이를 배경으로 나진은 1934년 면에서 읍으로 승격한지 2년만인 1936년 부로 승격하였다. 1899년 개항장으로 출범한 성진은 1917년 지정면이 되었고 1930년대 ‘조선공업화’와 ‘북선개발’로 인해 지하자원과 목재의 집산항, 중화학 공업의 도시로 발전하여 드디어 1941년 부로 승격되었다. 흥남은 1920년대 후반 일본 화학·군사 공업의 대표적인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의 공장과 계열회사들이 들어서면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하여 1931년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고 1944년 부가 되었다.¹⁸⁾

표 3. 함경도의 부와 지정면/읍 증가 상황

연도	부					지정면/읍(1930년 이후)			
	1914	1930	1936	1941	1944	1917	1920~29	1930~39	1940~1943[44]
함경남도	원산	함흥			홍남	함흥	북청(23)	홍남(31), 해산(34), 신포(37), 단천(39)	홍원 차호(41) 신창 영흥(42) 고원 천내(43)
함경북도	청진		나진	성진		나남, 성진, 회령	용기(26)	나진(34), 吉州(37)	아오지 무산 어대진(40) 주율(43)
소계 (누적) a	2	3	4	5	6	4	6	10	18[17]
전국 합계 (누적) b	12	14	18	21	22	23	43	77	123[122]
비중 (a/b*100)	17%	21%	22%	24%	27%	17%	14%	13%	15%[149]

자료: 孫禎睦, 1992:251-252; 朝鮮總督府, 1941,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39年)」; 南朝鮮總督府, 1948, 「朝鮮統計年鑑(1943)」, 南朝鮮總督府.
주: 밑줄 그은 지정면·읍은 부로 승격된 곳이다. 다만 나남읍은 1940년 청진부로 편입되었다. []의 안은 1944년 수치이다.

이렇게 볼 때 함경남·북도에서 府의 증가는 1930년대 이후 일본의 대륙침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선 북부의 산업화, 군사기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부 아래 행정 단위인 면 중에서 발전한 면을 '지정면'으로 지정하여 재정과 자치 면에서 부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했다. 1917년 6월 제령 1호로 공포, 10월 1일부로 시행된 면제에 의하면 "내선인(內鮮人, 한일인)이 다수 집단이 되어 그 상황이 부에 가까운 면"을 지정면으로 하고, 면장에 일본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면장의 자문기관으로 도장관이 임명하는 상담역을 둘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정면에 한하여 사업을 위해 총독의 인가를 받아 차입할 수 있게 하였다. 1917년 9월 총독부령으로서 당시 2,512개 면 중 23개 면을 지정면으로 정했다(朝鮮總督府 編, 1935:240-241). 1930년 종래 면제가 읍면제로 개정되면서(1930년 12월 제령 12호 공포 1931년 4월 시행) 지정면은 읍이 되었다(朝鮮總督府 編, 1935:607-609).

함경도의 지정면·읍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전후로 13도 중 2도의 비중(15%)과 대략 비슷하다. 그러나 15% 전후의 구성은 고정적이지 않았다. 지정면·읍 중 4개가 부로 승격되었고 1개가 부에 편입되었고 다시 면에서 승격된 새로운 지정면·읍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활발한 도시화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1917년 함흥, 성진과 함께 나남, 회령이 지정면이 되었는데, 나남은 일본군 19사단이 주둔한 군사도시이고, 회령도

북만주와 간도로 가는 관문이자 19사단 휘하의 군대가 주둔하는 국경의 군사도시였다. 이 때 지정된 4개면 중 3개면이 이후 부로 승격하거나 부에 편입되었다. 1920년대 지정면이 된 북청은 전통적인 지역의 중심지였고, 용기는 일본과 교역항으로 다수 일본인이 진출한 지역이었다.

1930, 40년대 함경도에서 승격된 읍 중 전통 도시를 제외하면 돋보이는 것은 어항 도시이다. 함남 북청군의 신포, 신창, 이원군의 차호, 함북 어랑군의 어대진은 예부터 명태어장으로 유명했고, 1930년대 정어리 잡이, 유지업으로 성장했던 어항들이다. 또한 해산, 무산, 아오지 등은 국경도시이자 지하자원 및 산림 개발로 성장한 도시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단천이다. 어항이었던 단천은 주변의 마그네사이트 광구가 개발되고 조선 마그네사이트개발주식회사(1939년 설립)의 설비가 들어서면서 광공업 도시, 교역항으로 발전했다. 함경도의 지정면·읍의 증가 상황은 일본의 군사적 점령, 1930년대 이후 어업의 성장, 지하자원 및 산림 개발에 의한 광공업과 무역의 성장을 잘 보여준다.

III. 인구의 변동

대전회통의 8도체제 무렵인 1864년 함경도의 인구는 69만 5728인으로 파악되었다(고승희, 2003:42-43).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1910년 함경남북도의 인구는 130만2633인으로 파악된다. 실제 증가와 함께 파악 능력의 제고에 따른 증가도 있겠지만 46년 사이에 1.9배 증가했다. 일제 시기 함경도의 인구는 그보다 많이 증가했다.

표 4를 보면 1910년부터 1943년 사이 전국의 인구는 200% 증가한 반면, 함경남도는 246%, 함경북도는 275% 증가하였다. 시기적으로 1920, 30년대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국이 1920-1930년 사이와 1930-1940년 사이 각각 117% 증가할 때 함경남도는 각각 121%, 127% 증가했으며 함경북도는 각각 137%, 149% 증가하였다. 1920대에는 함경도 개발이 시작되고 1930년대는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시

기이다. 민족별로 보면 조선인도 증가했지만, 일본인과 중국인의 증가가 눈에 띈다. 1910년부터 1943년 사이 전국의 조선인은 197% 증가한 반면 일본인과 중국인은 각각 442%, 597% 증가했다. 함경남도는 그 사이 각각 239%, 1,011%, 1,035%, 함경북도도 각각 259%, 1,113%, 1,836%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여 전국의 민족별 비중이 1910년 조선인 98.6% 일본인 1.3%, 중국인(외국인) 0.1%에서 1943년 각각 96.9%, 2.8%, 0.3%로 변화할 때 함경남도 1910년 99.0% 0.9% 0.1%에서 1943년 96.0%, 3.6%, 0.4%으로 함경북도는 1910년 98.2% 1.6% 0.1%에서 1943년 92.5%, 6.5%, 0.9%로 바뀌었다. 조선인도 증가했지만 일본인, 중

표 4. 함경남북도의 인구 증가(1910~1943)

(단위: 명, %)

도별	민족별	1910		1920			1930			1940			1943			1910-1943 증가율
		인구수	성비	인구수	성비	증가율	인구수	성비	증가율	인구수	남/여	증가율	인구수	남/여	증가율	
전국	합계	13,313,017	113	17,288,989	106	130	20,256,563	104	117	23,709,057	102	117	26,662,150	100	112	200
	조선인	13,128,780	113	16,916,078	106	129	19,685,587	103	116	22,954,563	102	117	25,827,308	100	113	197
	일본인	171,543	118	347,850	114	203	501,867	108	144	689,790	107	137	758,595	102	110	442
	중국인	12,694	772	23,981	822	189	67,794	474	283	63,976	280	94	75,776	205	118	597
함경남도	합계	860,032	113	1,229,283	140	143	1,484,910	106	121	1,833,075	106	123	2,115,775	104	115	246
	조선인	851,782	113	1,211,920	106	142	1,441,898	104	119	1,758,412	105	122	2,032,108	104	116	239
	일본인	7,505	114	15,828	114	211	34,720	122	219	67,102	118	193	75,874	115	113	1011
	중국인	745	1,674	1,291	738	173	8,216	608	636	7,472	404	91	7,708	222	103	1035
함경북도	합계	442,601	115	523,890	105	118	715,916	106	137	1,064,677	111	149	1,218,841	108	114	275
	조선인	434,830	115	506,789	104	117	682,800	104	135	987,447	109	145	1,127,549	106	114	259
	일본인	7,156	130	14,931	136	209	26,669	113	179	68,264	117	256	79,680	113	117	1113
	중국인	615	6,050	2,140	2542	348	6,390	496	299	8,884	341	139	11,537	260	130	1876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해당 연도판; 南朝鮮過渡政府, 1948, 「朝鮮統計年鑑(1943)」, 南朝鮮過渡政府.

주: 1910년은 중국인은 외국인 전체의 수치이다. 당시 외국인의 93%가 중국인이었다. 증가율은 전항 연도 대비 수치이다.

국인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1943년 함경북도의 일본인 비중(6.5%)은 경성이 있는 경기도(6.3%), 부산과 마산 등을 끼고 있는 경상남도(4.2%)보다 많은 수치이며, 함경남도의 일본인 비중(3.6%)도 앞의 3도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1943년 중국인 비중도 평안북도(1.6), 함경북도(1.0%), 평안남도(0.5%) 함경남도(0.4%) 순으로 함경남북도가 중국인이 많은 편에 속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함경도의 일본인은 전국에 비해 1920, 30년대 증가가 많았으며, 중국인은 전국에 비해 함경북도는 1910년대, 함경남도는 1920년대에 집중 증가하였다.

표 4의 함경도 인구의 성비를 보면 민족 불문하고 모두 전국에 비해 남초 현상이 뚜렷했다. 그만큼 정주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35년 임시 국세조사 때 ‘부동인구’를 조사했다. 각도의 ‘상주인구’ 대비 ‘일시 현재자’를 조사한 결과 전국 17.1%인데, 1위가 함남 25.5%, 2위가 함북 24.8%이었다. 반면에 ‘일시 부재자’는 적은 편이었다. 특히 함북의 도외유출자가 가장 적는데, 보고서는 “개발” 때문이라 했다. 전자에서 후자를 뺀 유입인구 초과수(일시 현재자 - 일시 부재자)도 함남, 함북 순으로 많았다. 특히 주변도만이 아니라 원격지 도에서도 많이 유입되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북선 개발에 수반한 여러 사업이 현지히 진전함에 따라 상공업자 및 출가자(出稼者)가 진출했고, 조사당시 북선 연해는 마침 정어리 성어기에 해당하여 남선(南鮮) 방면에서 다수의 어업자가 유입한 결과”라 했다. 함경도에는 조선 바깥에서 온 외국인 일시 체

류자도 많았는데, “산업상 경제상 일대 비약을 보이고 있는 함남과 함북에 특히 다수”인 점은 당연한 현상이라 했다.¹⁹⁾

일제시기 함경도의 변화는 산업별 인구 비중에서 극명하게 들어난다. 표 5는 유업자의 직업을 산업별로 대분류한 것이다. 1920년만 해도 전국과 유사하게 농업이 85% 전후를 차지했고 다만 해안 지대임을 반영하여 어업 비중이 전국보다 약간 높았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는 1차 산업 위주였다. 이후 통계를 보면 전국에 비해 농업의 비중은 계속 떨어져 1940년 함남은 57%, 함북은 36%에 불과했다. 대신 광공업의 발달, 어업의 성장, 그에 따른 상업 교통업의 증가가 눈에 띈다. 기타 유업자도 대폭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속하는 직업은 금사, 안내인, 수위, 창고부, 청소부, 잡역부, 일용 등이다. 대부분 도시화에 따라 모여든 도시하층민의 직업이다.

표 6은 1930년 국세조사 때 함경도의 민족별 소분류 직업 중 1위부터 10위를 차지한 직업명과 인원수이다. 아직 공업화가 진행 중인 시점임을 감안하고 보면 산업별 분류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당시 사회상을 간취할 수 있다. 1930년 함경도의 한국인은 절대수에서 여전히 농업 종사자가 많았고 이는 소분류 직업에도 반영되어 함경남도 함경북도 모두 농업수취보조와 농경업주가 1,2위를 차지했고 작남·작녀(머슴)가 각각 6위와 8위를 차지했다. 같은 농업종사자라 해도 업주와 고용자의 계층 구분이 뚜렷했다. 두 도 모두 산악지대가 많아 화전민이 각각 3위와 9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함경남도에 잡업수조가 7위를 차

표 5. 함경도의 산업별 인구 비중(1920~1940)

(단위: %)

산업별/연도	1920			1930			1940		
	전국	함남	함북	전국	함남	함북	전국	함남	함북
농업(농림축업)	87	86	84	78	70	60	73	57	36
수산업(어업계림업)	1	2	3	1	3	6	1	4	6
광업	0	0	0	0	1	1	2	3	6
공업	2	1	2	6	11	11	5	11	18
상업	5	5	5	6	7	8	7	8	11
교통업	1	1	2	1	2	3	2	2	6
공무, 자유업	2	2	2	2	2	5	3	3	4
가사사용인	-	-	-	1	1	0	2	2	1
기타유업자	1	2	3	4	5	6	6	11	12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0년판;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查報告』 1930년판 및 1940년판.

주: 각 년도 10월 1일 기준 수치이다. 수치는 전체 유업자 중 산업별 비중이다. 괄호안 명칭은 1920년판 명칭이다.

지하였다. 어업노무자는 각각 9위와 4위를 차지하였다. 공업 중에는 두 도 공히 기직공(機織工)과 직물업주가 눈에 띈다. 대부분 지역특산물인 마직물 제조와 관련된 것이다. 상업은 물품판매업주가 가장 많았는데, 함경북도에서는 영세한 노점상, 행상도 10위를 차지했다. 또한 기타 유업자에 속하는 일용(날품팔이)이 각각 4위와 3위를 차지하여 1930년 전후 공황기의 실업과 도시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인의 상위 소분류 직업을 보면 이 땅의 지배자가 그들이었음을 보여준다. 함경남북도 공히 1위는 육군 하사관 및 병이었다. 함경북도에는 장교도 5위였다. 국경지대이고 나남에 일본군 19사단이 주둔했기 때문이다. 관리는 두 도에서 각각 3위, 2위를 차지했고 함경북도에서는 관리의 고용원도 9위를 차지했다. 함경남도에서 화학적 공정 종사노무자가 2위를 차지한 것은 흥남의 조선질소비료공

장과 관련된 인력이다. 어업과 상업, 교통업 관련 직업과 함께 대공목수가 각각 8위, 10위를 차지했는데 '복선 개발'과 도시화에 따른 각종 토목공사에 종사했을 것이다. 군사력과 행정력을 장악하고 공업화와 개발을 주도하는 것은 일본인이었다.

절대수에서 적지만 중국인의 소분류 직업 분포도 이 시기 함경도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요리업, 포목업, 야채배업과 관련된 직업은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늘 보이는 것이지만 토공이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 각각 1위 10위를 차지했다. 대공은 각각 7위, 11위²⁰⁾를 차지했다. 이 지역 토목공사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되었던 것이다. 함경북도에서는 날품팔이가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일자리를 찾아 개발 발전 중인 함경북도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채탄부가 6위를 차지하여 지하자원 개발에도 중국인이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6. 1930년 함경도의 민족별 직업인수 및 순위

(단위: 명)

도	순위	한국인	인수	일본인	인수	중국인	인수
함경남도	1	농업手助	191,574	육군현역하사관,병	1,883	토공	2,019
	2	농경업주	154,556	화학적 공정 종사노무자	1,787	일용	1,778
	3	화전경작종사자	49,199	관리	1,472	점원,매자	859
	4	일용	28,233	물품판매업주	1,006	작남,작녀	772
	5	기직공	21,125	어업노무자	672	물품판매업주	466
	6	작남(作男),작녀(作女) [머슴]	20,924	기타서기적직업	508	농경업주	449
	7	잡업수조	18,802	상업수조	486	대공	401
	8	물품판매업주	12,712	대공	481	농업수조	217
	9	어업노무자	11,905	점원,매자	393	요리점,음식점,유곽업,포주업주	198
	10	직물업주	8,596	여관,하숙집,요리점,음식점 등 여종업원, 급사	353	요리인	190
함경북도	1	농업수조	80,958	육군현역하사관,병	6,679	일용(단신고한자)	912
	2	농경업주	75,400	관리	1,336	점원,매자	585
	3	일용	15,811	어업노무자	1,254	물품판매업주	579
	4	어업노무자	14,125	물품판매업주	935	농경업주	545
	5	기직공	9,689	육군현역장교,준사관	470	작남,작녀	543
	6	물품판매업주	5,146	상업수조	423	채탄부	334
	7	직물업주	5,113	점원,매자	395	요리점,음식점,유곽업,포주업주	322
	8	작남,작녀	4,704	기타운수종사자	338	농업수조	301
	9	화전경작종사자	3,685	관리의 고용원	288	여관,요리점,음식점,유곽업의 관리자,객인	225
	10	노점상,행상등	3,174	대공	286	토공	220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년판.

IV. 결론

일제시기 함경도는 '군'의 숫자가 줄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기존에 비해 함경남도에서 3개, 함경북도에서 1개의 군이 늘었다. 증설된 '군'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914년 '부제'의 실시에 따라 부가 분리되면서 나머지 지역이 군이 되는 경우다. 함경남도의 덕원군, 함경북도의 부령군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도의 군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아 증설된 경우로 함경남도의 신흥군, 풍산군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 도내 군들 사이의 균형과 '부원(富源)'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했던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함경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부와 지정면·읍의 증가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는 도시화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배경은 일본의 군사적 점령, 1930년대 이후 어업의 성장, 지하자원 및 산림 개발에 의한 광공업과 무역의 성장이다.

함경도는 행정구역의 변화와 서로 호응하면서 인구 구성도 변화하였다. 함경도의 인구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더 빨리 증가하였다. 절대수에서 조선인이 많지만 일본인과 중국인이 조선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함경도의 산업별 인구 비중을 보면 1920년은 전국과 유사하게 농업이 85% 전후를 차지하는 1차 산업 위주의 지역이었으나, 1940년 농업인구의 비중은 50%를 넘지 못했다. 대신 광공업과 어업의 성장, 그에 따른 상업과 교통업의 증가가 눈에 띈다. 함경도의 인구 증가는 사회적인 요인이 컸다. 이는 전국에 비해 높은 남초 현상, 많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증명된다. 인구 흡수 요인으로 '북선 개발'에 수반한 여러 사업의 진전, 정어리 어업의 성행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중국인, 일본인도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었다. 민족별 상위 직업군은 이러한 도시화, 광공업 개발, 어업과 토목공사의 성행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함경도의 행정구역과 인구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 종래 제시된 식민지 조선의 전체 역사상과 다른 이 지역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행정을 강화하면서 활발한 개발 정책을 폈고, 이에 민족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모여 들었다. 물론 이는 일본의 중국침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선 북부의 군사기지화, 산업화, '환동해경제권' 구상 위에서 이뤄졌다. 조선총독부와 일본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이 지역의 역동성은 조선 후기 이래 계속되었던 것이며, 해방 이후 북한 정권 아래

에서도 일정기간 이어졌다(정병욱, 2014). 추후 함경도에 나타나는 역동성의 역사적 변천, 역동성이 지역성에 끼친 영향, 다른 지역과 상관관계 등을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함경도의 특성은 전체 속에서 파악되고, 그 진로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도시화와 개발은 '점의 지배'에서 '면(권역)의 지배'로 전환을 전제한다. 함경도에서 군의 증설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의 지배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가 필수이다. 일본은 이미 1897년 밀정(小山光利)을 함경북도에 보내 시찰케 한 뒤 이듬해 약 500장에 달하는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²¹⁾ 이후 함경도에 대한 군사, 광업, 농업 등에 관한 조사 작업이 계속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지배의 실상과 의미를 밝히기 위해 행정구역, 인구, 산업의 변화와 이러한 각종 조사 작업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註

- 1) 역사지리 정보의 축적의 의미와 방법에 관해서는 김중혁(2013) 참조.
- 2) 마을명 분석을 통해 경기도와 함경도의 마을 입지를 비교한 연구(정치영, 2005), 이 지역 도시 경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송규진, 2013)가 있을 뿐이다.
- 3) 구한말 행정구역변화에 관해서는 尹貞愛(1985), 尹海東(1997), 정광섭(2012)을 참조하였다.
- 4) 「地方制度調査」 중 “八道 舊制 沿革”.
- 5) 조두순 저(한국법제연구원 역주), 2000, 「大典會通」, 서울; 한국법제연구원의 吏典-外官職-咸鏡道.
- 6) 대전회통에서는 전국의 대호부는 75개로 경기도에 8곳, 충청도에 1곳, 경상도에 14곳, 전라도에 7곳, 황해도에 6곳, 강원도에 7곳, 함경도에 18곳, 평안도에 14곳이 있다. 그리고 대도호부는 5개로 경상도에 안동(安東)·창원(昌原), 강원도에 강릉(江陵), 함경도에 영흥(永興), 평안도에 영변(寧邊)이 있었다.
- 7) 「대전회통」에는 후주(厚州)로 표기되는데, 이는 근대 13도제 성립 이후 평안북도 후창군을 말한다.
- 8) 「官報」, 1895.5.26, 칙령 제98호 “地方制度에 관한件”.
- 9) 「官報」 1896.8.4,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和 官制 및 俸給과 經費의 改正에 관한件”.
- 10) 「官報」 1895.9.8, 칙령 제164호 “郡守官等俸給에

關한 件”.

참고문헌

- 11) 경흥부는 1896년 13도 개정 당시는 1등군이었는데, 1903.7.6. 경흥군(4등)으로 강등되었다가 1906.9.24. 경흥부로 다시 승격되었다. 강제병합 직후 1910.10.1. 행정구역 개편에서 경흥군이 되었다.
 - 12) 길주군은 1896년 13도 개정 당시 2등군이었는데, 1898.7.6. 길주군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성진군을 신설했다. 이후 길주군과 성진군은 통합과 분리가 반복되면서 지역민들간의 갈등도 매우 커졌다. 1899년 개항장 감리서가 성진에 설치되면서 성진군은 성진부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곧 1900년 길주군과 성진부 통합이 제기되면서 일단 1월에 길주군으로 통합하여 길주부가 되었으나 다시 5월 길주부를 폐지하고 성진부를 복설하는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1901년 10월 성진군을 폐하고 길주군을 재통합되었고, 1902년에는 길주군이 길주부로 다시 승격되었다. 1903년 7월 전국의 모든 부를 군으로 통일하는 방침이 내려지면서 길주부도 다시 길주군이 되었고, 이어 1903년 8월 성진군이 복설되었다. 이후 길주군과 성진군은 2개의 군으로 유지되었다.
 - 13) 朝鮮總督府, 1912,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0年)」, 2; 朝鮮總督府, 1915,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3年)」, 1.
 - 14) 수치 상 12개부이니 12개 군이 신설되어야 하나, 진남포부가 되고 남은 지역은 용강군에 합병되었다.
 - 15) 朝鮮總督府, 1914,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2年)」, 1-2.
 - 16) 청진에 대해서는 송규진(2013) 참조.
 - 17) ‘환동해경제권’에 관해서는 塚瀬進(1993), 芳井研一(2000) 참조.
 - 18) 성진에 관해서는 孫禎睦, 1996a:572-672 참조.
 - 19) 朝鮮總督府, 1937, 「昭和十年(1935) 朝鮮國勢調査報告 - 全鮮編 結果表及記述報文」, 52-56.
 - 20) 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공(大工)은 요리인과 함께 194명으로 11위였다.
 - 21) 보고서는 ‘小山光利韓國北邊事情視察報告書’란 이름으로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아시아歷史資料센터(<http://www.jacar.go.jp>)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다.
-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서울: 경세원.
- 고승희, 1987,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길인성, 2001, “일제시대 한국인의 인구 추정에 관한 소고,” 西江經濟論集, 30(2), 177-191.
- 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 2005,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 한국민족문화, 26, 283-319.
- 김병문, 2010, “일제침략기 지방행정구역 변천과정: 식민지 통치 강화를 위한 안동지역의 행정구역 축소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26(1), 343-365.
- 김연지, 2007, “1914년 경상남도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성격,” 역사와 세계, 31, 41-104.
- 김종혁, 2013, “역사지도 제작을 위한 역사지리환경의 복원,” 한국지도학회지, 13(2), 77-94.
- 김홍순, 2011, “인구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도시화 성격: 일제강점기와 그 전후(前後) 시기의 비교,” 韓國地域開發學會誌, 23(2), 19-46.
- 朴道植, 2004, “강릉의 역사적 변천과 행정구역의 변화,” 人文學研究, 7, 129-184.
- 서현주, 2004, “일제의 지방행정구획 개편의 내용과 성격: 1914년 서울의 町洞개편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33, 271-307.
- 孫禎睦, 1992,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上) - 甲午更張~日帝強占期」, 一志社.
- 孫禎睦, 1996a, 「(日帝強占期)都市化過程研究」, 一志社.
- 孫禎睦, 1996b, 「(日帝強占期)都市社會相研究」, 一志社.
- 송규진, 2013,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사회연구, 110, 327-389.
- 申容澈, 1988, “日帝下の人口増減에 관한 研究,” 西原大學論文集, 21, 213-229.
- 양승필·이강업, 2011, “일제강점기 청주 도시공간구조 변화과정 연구: 행정구역 도시계획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7(11), 259-268.
- 우승완·김행범·이석배, 2011, “일제강점기 여수의 도시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5), 103-121.
- 尹貞愛, 1985, “韓末 地方制度 改革의 研究,” 歷史學報, 105,

67-109.

- 尹海東, 1997, “統監府設置期’ 地方制度의 改定과 地方支配 政策,” 韓國文化, 20, 391-433.
- 이병운, 2007, “부산 행정구역 지명의 변천사,” 한국민족문 화, 29, 329-378.
- 이정은, 1992, “日帝의 地方統治體制 수립과 그 성격,”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6, 233-273.
- 이흥락, 1994, “식민지의 사회구조,” 강만길 등 편, 「한국사 14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 서울: 한길사, 139-199.
- 정병욱, 2014, “북한 대기근의 역사적 기원-일제시기 함경 도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9, 65-93.
- 정광섭, 2012, “23부제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소고,” 한일관 계사연구, 41, 303-344.
- 정치영, 2005, “마을명 분석을 통한 마을 입지 및 지역성 연 구: 경기도와 함경도의 비교,” 문화역사지리, 17(2), 58-73.
- 조두순 저(한국법제연구원 역주), 2000, 「大典會通」,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金哲, 1965, 「韓國의 人口と經濟」, 東京: 岩波書店.
- 南朝鮮過渡政府, 1948, 「朝鮮統計年鑑(1943)」, 南朝鮮過渡 政府.
- 藤本梅良, 1929, 「(赴戰嶺水電工事)新興의 咸南」, 咸興: 新興 의 咸南社.
- 芳井研一, 2000, 「環日本海地域社會の變容 - 滿蒙間島と裏 日本」, 東京: 青木書店.
- 臨時土地調査局, 1914, 「面ノ名稱及區域」.
- 畑本昇, 1924, 「(東朝鮮의 寶庫) 咸鏡南道案内」, 咸興: 阿波谷 商店.
- 朝鮮總督府 編, 1935, 「施政二十五年史」, 京城: 朝鮮總督府.
-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朝鮮總督府, 1912,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 塚瀬進, 1993, 「中國近代東北經濟史研究-鐵道敷設と中國東 北經濟の變化」, 東京: 東方書店.
- 咸鏡南道, 1914, 「咸鏡南道統計年報(1912年)」, 京城: 咸鏡南道.
- 咸鏡南道, 1917, 「(朝鮮總督府)咸鏡南道統計年報(1915年)」, 京城: 咸鏡南道.
- 咸鏡南道廳 編, 1930, 「咸鏡南道誌」, 京城: 咸鏡南道.
- 「官報」, 1895.5.26, 칙령제98호 “地方制度에 관한件”.
- 「官報」, 1895.9.8, 칙령제164호 “郡守官等俸給에 관한件”.
- 「官報」, 1896.8.4., 칙령제36호 “地方制度와 官制 및 俸給과 經費의 改正에 관한件”.
- 「地方制度調査」(연도, 작자미상, 국가전자도서관 [http:// www.dlibrary.go.kr](http://www.dlibrary.go.kr) 열람)
- 교신: 정병욱, 136-701, 서울 성북구 암암로 145, 고려대학 교 민족문화연구원(이메일: jungbw@korea.ac.kr)

Correspondence: Byungwook Jung,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136-701, Republic of Korea (Email: jungbw@korea.ac.kr)

투 고 일: 2014년 12월 3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11일
투고확정일: 2014년 12월 17일